

check ME up!

2026년 7월 5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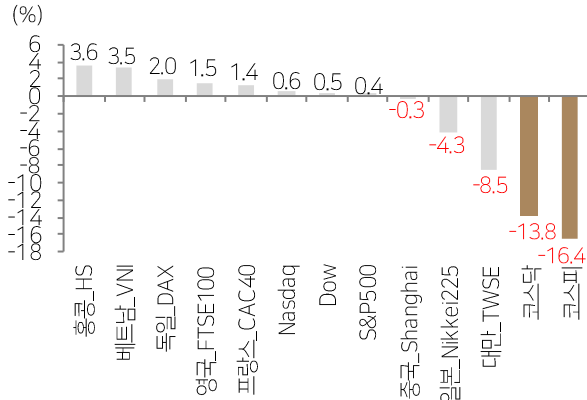
홍록은 투자전략 RA | hongre@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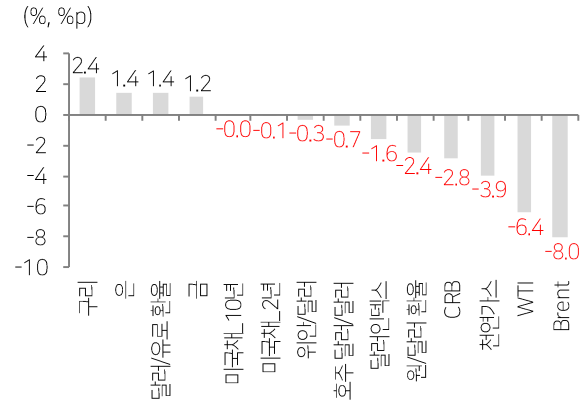
I.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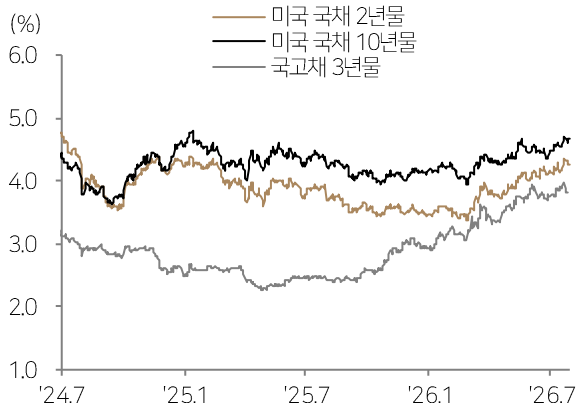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7/24일 대비 7/30일 증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Note: 수익률은 7/24일 대비 7/30일 증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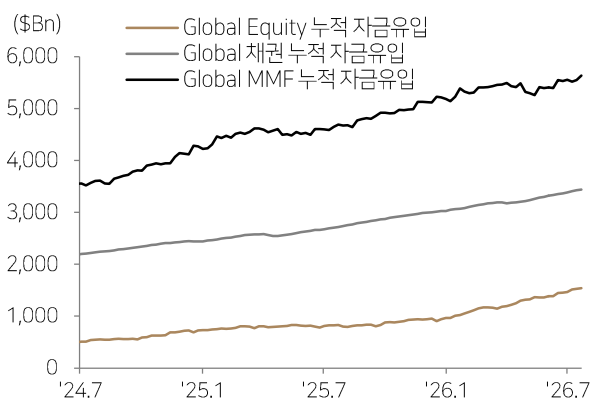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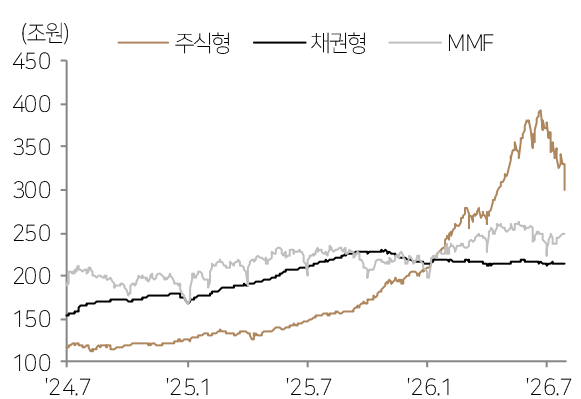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II. 경제지표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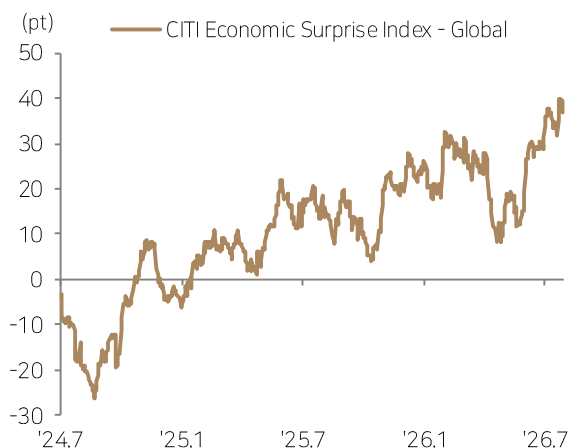
- 펀더멘털 관련 지표들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나, 적어도 왜곡된 수급이나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견고한 펀더멘털이 될 것. 이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수출이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 하반기 수출은 지난해 높아진 기저로 YoY 증가율 측면에서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나, 연말까지 평균 +50% 내외의 수출 증가율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전일 FOMC에서 케빈 워시는 시장의 나이브한 반응도 정보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 결국 발표되는 지표들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가지는 중요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ISM 서베이 지수와 고용지표들을 통해 장기금리에 투영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 강도가 높아질 경우 경계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8-01	한국	7월 수출입	%yoy	59.0/27.8	70.7/30.0
2026-08-03	미국	7월 ISM 제조업 지수	Index	54.0	53.3
2026-08-03	미국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Index	-	53.8
2026-08-04	한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0	3.2
2026-08-04	미국	6월 JOLTS 구인 건수	천건	7,250	7,594
2026-08-04	미국	6월(최종) 내구재 수주	%mom	-	0.3
2026-08-05	미국	7월 ADP 고용변화	천건	75	98
2026-08-05	미국	7월 ISM 서비스업 지수	Index	54.3	54.0
2026-08-05	유로존	6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5.9
2026-08-05	미국	7월(최종)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Index	-	53.6
2026-08-05	미국	7월(최종) S&P 글로벌 종합 PMI	Index	-	53.6
2026-08-07	미국	7월 비농업 고용 변동	천건	90	57
2026-08-07	미국	7월 실업률	%	4.2	4.2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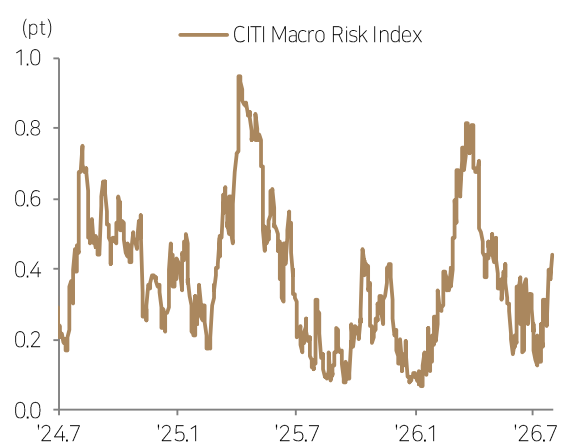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7/31	한국	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시행	■ 지난 7월 16일 관계 기관은 최근 국내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관한 보완 방안을 발표. 당초 8월 중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조속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시행조치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결정 ■ 이전 기본예탁금 의무 예치 금액 1천만원(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인정비율 70%)에서 단일종목 상품 한정 현금으로만 3천만원(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미인정)으로 상향
8/4	미국	상	AMD 실적 발표	■ AMD는 8월 4일 미국 증시 마감 후 2Q26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시간 8월 5일 오전 6시 컨퍼런스콜 진행 예정. 회사가 제시한 2분기 매출 가이드는 112억달러, 시장 컨센서스는 블룸버그 기준 매출 113억달러, EPS 1.62달러로 형성. 데이터센터 및 AI 가속기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지가 핵심 ■ 최근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클라우드 고객의 AI 투자 및 수요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될 경우 AI 인프라 투자 지속 기대가 강화될 수 있음. 반면 데이터센터 매출이나 수익성, 하반기 가이드스가 기대에 미달할 경우 반도체 업종 전반의 실적 둔화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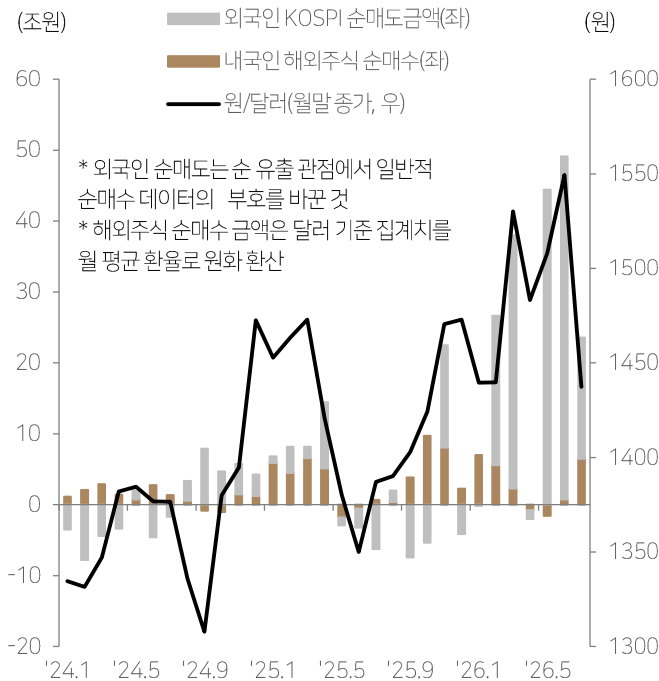
일자	내용
금주 (07/24~07/30) 증시 동향	■ KOSPI(-16.4%), KOSDAQ(-13.8%) 하락. KOSPI는 필수소비재(+2.4%), 건강관리(+0.6%)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IT하드웨어(-32.5%), 기계(-22.5%), 에너지(-21.7%) 업종 하락. 반도체 업황 우려가 심화되며 이들 연속 코스피·코스닥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급락을 기록. SK하이닉스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한 데 이어 급락 이후 반등 실패에 투매성 매물 출회되며 코스피 5,600대로 하락. 주 후반 반등 시도에도 빅테크 가이드스·FOMC·중동 상황 등 다수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상승분 반납 ■ DOW(+0.5%), S&P500(+0.4%), NASDAQ(+0.6%) 상승. 중동 전황 뉴스 혼재된 가운데 AI 투자 과열과 빅테크 수익성 우려로 반도체주 조정 및 순환매 유입. 주 후반 FOMC 이후 금리 부담이 확대되며 하락했으나, MS 호실적과 반도체 업종 강한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
차주 (08/03~08/07) 증시 전망	■ 일각에서 폭력적인 하락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정도로 급한 하락 국면을 경험한 한 주. 이미 각종 기술적 지표와 밸류에이션 지표는 저평가를 논할 수 있는 수준에 진입했음에도, 금리에 대한 경계심과 AI 업황에 대한 불신 그리고 수급상의 왜곡 등이 중첩되며 급락 국면이 지속. 아직까지 수급상 안정감이 제고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심리적인 불안도 상당히 증폭된 상황. 전일 FOMC 결과도 금리에 대한 부담을 진정 시키기에 충분치 못했던 결과 ■ 한국 증시는 전역적인 하락 과정에서 업황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여타 업종들까지도 밸류에이션 상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단일종목ETF의 규모도 설정 당시 수준으로 회귀해 상대적으로 수급 부담은 완화. AI 기업들의 실적시즌을 통해 CapEx 지출 지속 의지도 확인 중. 국내 기업 실적 역시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발표 중. 금리 부담 등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적어도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 현재 미국채 등락 범위가 높아진 만큼 반등 목표 설정 시 이를 반영한 7,000선 초반대를 1차 타겟으로 예상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증가 대비 금주 목요일 증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IV.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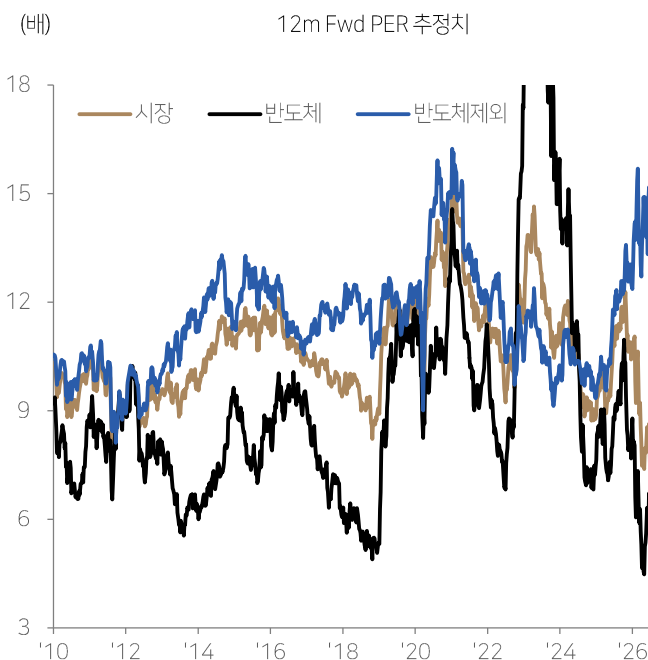
급한 강세를 시험하고 있는 원화



Source: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7월 원/달러 급락이 진행. 전일 증가 1,434원대까지 하락, 월초 1,559원 대비 120원 이상 급락. 유가 반등, 연준 통화정책 우려, 한국 증시 기록적 폭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화는 쉽게 보기 힘든 강세를 진행
- 이유는, ① 포트폴리오 투자 관련 순외화 유출이 7월 둔화되며 약세 압력이 경감됐고, ② 한국은행 금리 인상, ③ SK하이닉스 ADR 관련 대규모 달러 공급 기대 + 실제 환전 수요, ④ 원화 강세가 순환적으로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조기화 수요 가산 등
- 아직 구조적 변화 근거를 찾기 어렵고, 기업측 수급 소진 정도도 특징이 어려움. 그러나 외국인 순매수도 아닌 매도 둔화로 이런 반응이 나타난 점은 1,500원대 환율이 오버슈팅 영역이었다는 점을 반증. 당사는 현재 1,450원 내외를 균형환율 수준으로 추정. 당분간 저환율 움직임 나타날 수 있으나, 수급 요인 소진 시 균형 수준 부근의 등락을 전망. 금리 측면에선 인상 조건 중 하나가 완화된다는 긍정적 소재, 증시 입장에서 수출 환산이익 둔화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부담

반도체만 싼 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싸졌다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급락으로 밸류에이션이나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의 저점 영역 타진이 무색해지는 상황에 직면. 그러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시장 전체가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 진입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
- KOSPI의 PER은 최근 지속적인 저밸류 상태에 놓여 있었음. 그러나 이는 반도체 수출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싹임 현상이기도 함. 반도체 업종의 경우 최근 급락 과정에서 3배대의 PER을 경험할 정도였고, 이들의 높은 시가 총액 비중이 시장 전체의 PER을 낮게 만드는 소재로 작용했기 때문. 그러나 최근 급락 과정에서 반도체 이외 업종들도 급한 하락에 직면한 사례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비반도체 업종들의 PER도 상당히 낮아짐
- 단순히 시장 시가총액과 순이익 컨센서스로 계산해 보면, 전일 반도체는 3.4배, 비반도체는 10.9배 수준으로 계산. 지난 주말까지 비반도체 PER은 12.4배였고, 최근 10년간 비반도체 평균 PER은 11.9배. 반도체를 빼도 낮은 밸류에이션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